

획/원/사/탐/방

- 대표이사 : 박 용 관 추 안 구
- 설립연도 : 2003년
- 본 사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459-3
- 주생상품 : 광통신부품(제조, 판매, 건설팅), Transceiver 모듈
- 전화번호 : 062) 605-9197
- 팩 스 : 062) 605-9169

OptoElectronics
Solutions Co., Ltd

(주)오이솔루션

광능동부품의 대표주자 꿈꾸며 기술개발 박차

광통신 송·수신기 모듈 전문 기업으로 창업

최근 국내 대기업출신 광통신 전문가들이 광주에 잇따라 회사를 설립해 등지를 틀면서 침체분위기의 '광산업 메카' 광주의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수동소자 부품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광주지역 광산업계에 지난해 설립된 (주)오이솔루션(대표이사 박용관, 추안구)에 대한 광주 광산업 업계의 기대는 아주 높다. 광통신 및 수동부품 위주인 광주 광산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 회사가 '능동 부품의 대표 주자'라며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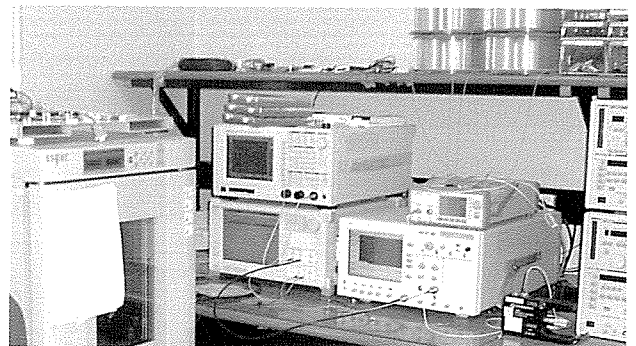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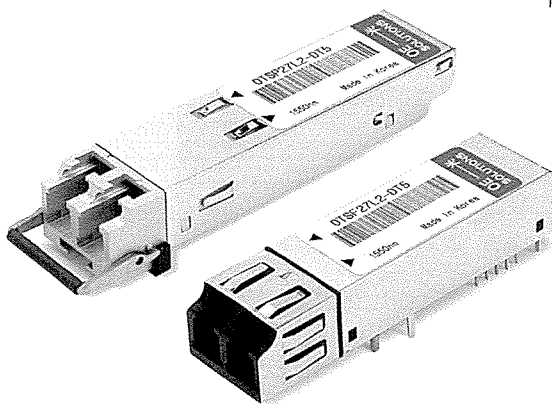
"새롭게 기업을 시작한 만큼 반드시 성공하고 사회적인 책임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8월 광주에서 광통신 송·수신기 모듈 전문 기업인 오이솔루션을 설립한 박용관 사장과 추안구 박사의 남다른 각오다.

지난 72년 서강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75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포드대에서 응용 물리학 석·박사를 취득한 뒤 20여년 이상 미국에서 생활해온 그가 광주에서 창업한 것은 분명 관심의 대상이다.

게다가 그는 AT&T와 루슨트테크놀러지의 벨연구소에서 연봉 2억원대의 수석 엔지니어를 역임했고 세계 최대의 공학 계열학회인 IEEE에서 올해 신임 펠로우로 뽑히기도 했다. 이같은 그의 이력 때문에 그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은게 사실이다.

"나이를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귀소 본능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처음에는 겁도 나고 많이 망설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은 우수한 인력구성이 장점

박 사장은 광주에서 등지를 튼 이유에 대해 “광주시가 지난 4년간 광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시설과 장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놓았다”며 “초기 소요 자금의 부담을 덜 수 있고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기술지원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게 장점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그는 “벨연구소를 그만 둔 지난 2001년 초부터 2년간 수동광소자 전문 기업인 미국의 나노옵토에서 창업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다”며 “3~4년 전부터 창업을 염두에 두었는데 광주시 투자유치 담당자와 접촉한 끝에 최종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4년부터 삼성종합기술원·삼성전자에 10년 가까이 광통신모듈사업분야에 전념해오면서 광사업부 그룹장과 통신연구소 프로젝트 매니저, 622Mbps 광송수신 모듈을 개발하는 등 광부품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온 추안구 박사는 박 사장과 함께 오이솔루션을 설립에 뜻을 같이 했다.

현재 오이솔루션의 인력구성은 삼성전자, LG전선 등 광관련기업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로 박사급 5명, 석사급 3명 등 총 13명으로 광 기술 개발에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은 우수한 인력구성이 장점이다.

오이솔루션은 박 사장과 삼성전자 광사업부 그룹장과 통신연구소 프로젝트 매니저 출신인 추 박사가 호흡을 맞춰 2.5 트랜시버 모듈 등 대내광가입자망(FTTH) 제품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내광가입자망(FTTH) 제품 생산에 주력할 계획

현재 제품 샘플 제작을 마치고 해외마케팅에 나선 오이솔루션은 올해말까지 기술연구소 설립 및 생산 공장을 마련해 양산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회사의 주력제품은 Multi-rate SFP 트랜시버로 한개의 제품으로써 기존 SONET OC-48/SDH STM-16(2.5Gbps), SONET OC-12/SDH STM-4(622Mbps), SONET OC-3/SDH STM-1(155Mbps) 등의 SONET/SDH 시스템에 모두 적용할 수 있고, 또한 Gigabit 이더넷과 Fiber Channel 시스템에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광 트랜시버 제품이다.

오이솔루션은 향후 FTTH의 핵심부품인 Triplexer BiDi 트랜시버 모듈로 기존의 쌍방향 데이터 전송에 Video 신호를 추가하여 HDTV 등의 위성방송 수신에 가능하도록 하는 트랜시버와 10Gbps Gigabit Ethernet 분야의 핵심 광부품인 XFP 트랜시버로 전송거리에 따라서 OSA(Optical Sub-Assembly) 형태 및 Active Device를 포함한 부품의 차이가 있다.

추 사장은 “현재 트랜시버 모듈 시장은 미국과 영국 등 몇몇 업체가 지배하고 있다”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제품 생산에 나서 매년 10배 이상 성장해 2007년까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오이솔루션은 앞으로 광산업계에서 수동과 능동부품의 협업 계기를 마련하고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취재 / 기획홍보팀 윤희진〉

